

## 〈書評〉

## 李惠求 譯『國譯 樂學軌範 I』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79. 菊版 237面(翻譯)+92面(原文)  
(古典國譯叢書 199)

宋 芳 松

〈國立國樂院 院長〉

“성종 당시의 음악을 자세히 기술한 〈악학궤범〉은 폐절된 음악을 복구하는 그런 실용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술면에서도 중요함은 물론이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악·당악·향악에 걸쳐 그 율조·악현(樂懸)·무도(舞蹈)·악기(樂器)·의물(儀物)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도설(圖說)한 〈악학궤범〉은 음악에 관한 다른 군서(群書) 위에 높이 솟아 출간 이후 최근까지 여러차례 복각 또는 영인되어 오늘까지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이 引用文은 晩堂 李惠求博士님께서 『韓國의名著』(서울: 玄岩社, 1969), pp. 374-75에서 발표한 『樂學軌範』 解題의 일부이다. 이미 韓國音樂學 分野에 잘 알려져 있듯이 朝鮮初期 音樂의 歷史的 흐름을 研究하는데 가장 중요한 原典의 하나가 『樂學軌範』이다. 이 文獻은 國樂學界에서 뿐만이 아니라 國文學·國語學·韓國傳統舞蹈 및 衣裳과 儀物研究에도 기본적인 原典으로 引用 또는 研究되어 오고 있다. 더우기 東洋文化의 歷史를 研究하는 西洋學者들에게도 『樂學軌範』의 重要性이 널리 認定됐으니, 그 좋은 보기로 Joseph Needham 이 지은 유명한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 IV:1(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2), p. 127에서 引用 및 紹介된 것을 들 수 있겠다. 사실 『樂學軌範』은 中國의 古典音樂文獻인 陳暘의 『樂書』나 蔡元定の 『律呂新書』 또는 朱載堉의 『律呂精義』나 『律書』에 비해서 못지 않은 귀한 東洋의 音樂原典이라고 믿어 疑心치 않는 바이다.

이번에 出刊된 『國譯 樂學軌範』은 晩堂先生님께서 1979년을 보내면서 韓國音樂學 研究分野에 이루어 놓으신 빛나는 業績의 하나이다. 晩堂선생님이 韓國音樂學的 學問的 基礎를 닦는 作業에 關心을 나타내신 지는 25년전의 일이었으며, 그러한 關心의 열매인 『樂學軌

(1) 李惠求, “樂學軌範 譯註”, 『東方學誌』(서울: 延大 東方學研究所, 1955), 第2輯, pp. 209-285와 『東方學誌』(1961), 第5輯, pp. 45-120를 參照.

範』의 일부 翻譯은 이미 두번에 걸쳐 發表된 바 있다.<sup>(1)</sup> 李惠求博士님은 번역사업에서 뿐 아니라 韓國音樂史의 研究分野에서도 他的 追從을 不許하는 훌륭한 貢獻을 세우셨으니, 『韓國音樂研究』(서울: 國民音樂研究會, 1957)·『韓國音樂序說』(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7)·『韓國音樂論叢』(서울: 秀文堂, 1976)이 바로 그러한 結實의 보기들이다. 이 세 論文集은 韓國音樂學의 發展에 굳건한 礎石을 이루는 功績이요, 한편 우리傳統音樂의 學問的 研究分野에서 泰斗로서 認定을 받도록 해 주는데 決定的인 구실을 했다. 이번의 『國譯 樂學軌範』도 또한 韓國音樂學의 研究分野에서 泰斗의 位置를 더욱 鞏固히 해 주는 力著이며, 그것은 韓國音樂史研究을 위한 文獻資料의 번역사업에 關心을 나타낸 이후 李博士님께서 20여년 보내면서 계속 연구하여 옛날의 부족함을 補完하셔서 펴낸 決定版임에 틀림없다.

이 力著의 內容은 解題·翻譯·原文 이상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解題에서 譯者는 『樂學軌範』의 最古本 및 編纂動機에 對해서 說明하신 후 이어서 9卷의 內容을 차례로 要約하셨으며, 끝으로 이 文獻의 重要性 및 壬辰亂前版과 後版의 差異點을 羅列하셨다. 翻譯部分은 樂學軌範 序, 卷1: 六十調 等の 音樂理論, 卷2: 雅樂陳設圖說 및 俗樂陳設圖說, 卷3: 高麗史樂志 唐樂呈才 및 鄉樂呈才, 그리고 卷4: 成宗朝唐樂呈才圖說 이상 다섯部分으로 構成되어 있다. 책의 끝부분에 壬辰亂前版으로 學界에 알려져 있으며 日本 蓬左文庫에 保存되어 내려온 現存 最古本인 『樂學軌範』(卷1~卷4)이 影印되어 附錄했다.

晩堂先生님께서 1943년<sup>(2)</sup> 以來로 40년 가깝게 韓國傳統音樂의 研究를 爲해서 갈고 닦으신 學問的 力量을 總決算하는 意味가 『國譯 樂學軌範』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위에서 言及한 세권의 研究論文集과 『樂學軌範』의 일부 翻譯을 概觀하건데, 晩堂先生님의 研究는 주로 文獻考證學의 方法論과 比較分析의 方法論에 바탕을 두고서 學問活動을 하셨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學問的 結實인 『國譯 樂學軌範』에서 晩堂先生님의 學問的 研究方法論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들어서 살펴보면, 『樂學軌範』 卷2를 翻譯하실 때, 李惠求博士님은 『世宗實錄』과 『世祖實錄』을 根據로 成宗(1469~1494) 때의 樂制를 朝鮮初期 世宗(1418~1450)과 世祖(1455~1468) 當時의 것과 比較하여 考察하셨으며, 다시 『增補文獻備考』와 現行 演奏를 바탕으로 成宗 때의 것과 朝鮮後期 및 現在의 樂制와의 사이에서 서로 다른 點이나 變遷된 事實을 比較하여 分析하셨다. 더욱이 『樂學軌範』 卷1과 卷2의 翻譯을 發表하신 이후 새로이 學界에 알려진 『春

(2) 李惠求, “梁琴新譜의 四調字について”, 『田邊先生還曆記念東亞音樂論叢』(岸邊成雄編, 東京: 山一書房, 昭和 18), pp. 789-822. 이 論文은 本來 日本語로 發表했으나 후에 한글로 번역되어 “梁琴新譜의 四調”라는 題目으로 『韓國音樂研究』(서울: 國民音樂研究會, 1957), pp. 26-47에 復刊될. 이것이 晩堂先生님에 依한 첫번째 學術的인 研究論文이며 體系를 갖춘 韓國音樂學의 本格的인 出發로 看做되고 있음.

『官通考』<sup>(3)</sup>는 成宗時節과 朝鮮後期の 中間 사실을 밝혀 주는데 決定的으로 重要な 役割을 하게 했는데, 晩堂先生님은 이번의 決定版인 『國譯 樂學軌範』에서 『春官通考』를 引用함으로써 지난번 研究 때 밝힐 수 없었던 音樂的 變遷過程을 자세히 考證하실 수 있었다(實例로서 本文의 87面 “永寧殿 登歌”와 89面 “永寧殿 軒架”의 註釋(\*表) 參照). 이번의 研究를 通하여 文獻에 對한 百科事典類의 該博한 晩堂先生님의 知識과 韓國音樂學 分野의 學問의 깊이가 빠짐없이 學界에 드러나게 됐다. 이러한 文獻考證的 또는 比較分析的 研究方法論에 依한 該博함이 때때로 本文의 翻譯部分보다 긴 註釋에 나타났으니, 40面の 註77・44面の 註94・140~142面の 宴享樂에 關한 註(\*) 등이 좋은 보기들이다. 아무튼 晩堂先生님께서 이번에 보여 준 깊고 넓은 學問的 知識과 그 知識을 바탕으로 한 力著는 앞으로 韓國音樂學의 發展을 爲한 基礎作業인 古典國譯分野에서 활동할 後學들에게 좋은 본보기로서 훌륭한 길잡이 구실을 할 것임에 틀림없겠다.

이번 翻譯의 한 特徵은 前번 것에 비해서 原文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했기 때문에 學生이나 學者들 뿐만이 아니라 一般人들에게도 쉽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새 翻譯이 먼저 것과 어떻게 다른 가를 다음의 『樂學軌範』序文 첫 句節의 翻譯에서 쉽게 發見할 수 있겠다.

音樂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머물고, 虛無에서 發生하여 天生自然의 器에 結成되는 까닭에, 사람을 마음으로 感하게 하고, 그 血脉을 뛰게 하고, 그 精神을 相通시키는 것이다.<sup>(4)</sup>

악(樂)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요, 허(虛)에서 발하여 자연(自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血脈)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流通)케 하는 것이다.<sup>(5)</sup>

위에서 보듯이 그렇게 쉽게 內容을 풀어서 翻譯한 것은 첫번 翻譯을 1955년에 發表한 이후에도 보다 나은 補完을 爲해서 努力하시고 研究해 온 結果임에 疑心의 餘地가 없으며, 이 하나의 보기를 通해서 우리는 晩堂先生님께서 보여준 學問에 對한 眞摯하고 誠實한 姿勢를 들여다 볼 수 있겠다.

다음에 披瀝한 本人의 意見은 이책의 重要性和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앞으로 改訂할 때 參考가 될 것으로 믿어서 附言하는 바이며, 몇가지 誤字의 指摘은 다만 玉의 티로서 앞으로의 再版 時에 訂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期待하면서 적은 것이다. 意見의 披瀝에 앞서

(3) 柳義養編. 1798년(正祖 13). 96卷 62冊으로 된 이 文獻은 朝鮮王朝의 禮曹에서 掌管했었던 禮와 樂의 故實을 總網羅해 놓은 책임. 純祖(1801~1834)때 펴낸 國立中央圖書館 所藏의 것을 底本으로 한 影印本 3卷이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에 依해서 1975~1977년 사이에 出刊됨. 吉禮・嘉禮・軍禮・賓禮・凶禮 이상 五禮의 沿革과 實行事例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春官通考』는 宗廟・社稷・宴禮 등 宮中儀式에 關聯된 國樂研究에 重要的한 原典의 하나로 認定되고 있음.

(4) 『東方學誌』(1955), 第2輯, p. 210.

(5) 『國譯 樂學軌範』(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79), p. 17.

서 本人이 먼저 밝혀 두고자 하는 바는 論評을 原文의 翻譯部分보다도 註釋部分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事實이다. 그 理由는 本人의 漢文知識이 未熟하여 번역부분을 올바르게 가름할 수 없기 때문이며, 平素 韓國音樂學의 研究分野에 關心을 두어 온 復學의 한사람으로서 本人은 學問的 깊이를 잘 나타내는 註釋에 많은 關心을 두었기 때문이다.

學問의 核心은 論理性和 正確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學術論文이나 著述에서 註釋의 重要性和 올바른 使用法에 關해서 本人은 이미 밝힌 바 있는데,<sup>(6)</sup> 거기서 特히 學問의 正確성에 關聯된 註釋의 形式이 體系있게 組織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論者나 著述者가 가장 合理的이라고 한번 決定한 註釋의 形式은 著述이나 論文의 끝까지 一貫性있게 밀고 나가야 함을 역시 그곳에서 強調했다. 이런 觀點에서 晩堂先生님의 註釋을 概觀하건데, 統一성이 缺如된 것들이 많이 發見된다.

첫째 冊名을 「」표로 묶는다고 일러두기(14面)에서 밝혀 두었음에도 不拘하고, 많은 冊名이 그렇게 表示되지 않았다. 40面에서 註77의 「中國音樂史」·「成均館大學校論文集」, 41面에서 註78의 「韓國音樂論叢」, 註79의 「大東文化研究」, 179面에서 註3과 4의 「樂學軌範」과 註5의 「唐樂研究」, 195面에서 \*表의 「宋史」·「高麗史」·「世宗實錄」 등이 그러한 보기들이다.

둘째 指摘은 『樂學軌範』 卷1에서 音樂理論을 論할 때 成倪은 中國의 音樂文獻인 蔡元定の 『律呂新書』<sup>(7)</sup>·陳暘의 『樂書』<sup>(8)</sup>·脫脫의 『宋史』<sup>(9)</sup> 樂志를 주로 引用했는데, 晩堂先生님은 이런 中國의 原典을 確認하시고 表示하신 註釋이 正確하지 못하거나, 直接 『樂學軌範』의 引用原文을 原典과 對照하셨는지 疑心스러운 점이다. 다음의 <表 1>은 本人이 直接 確認한 몇가지의 文獻的 出處를 밝힌 것인데, 出處의 記載方式은 本人의 것<sup>(10)</sup>을 바탕으로 했다.

세째로 成倪이 『樂書』를 引用한 部分의 번역(54面)을 『樂學軌範』 卷1.17a2에 依해서 比較檢討하면, 道調宮이 中呂宮과 南呂宮 사이에서 빠졌다. 그리고 55面的 註150에서 晩堂

(6) 宋芳松, “韓國音樂學 關係 論文作成을 爲한 한 指針(I)——註釋의 形式을 中心으로——”, 『民族音樂』(서울: 서울大學校 音樂大學 附設 東洋音樂研究所, 1978), 第2輯, pp. 45-75.

(7) 本人이 原典의 確認過程에서 사용한 『律呂新書』는 현재 美國會圖書館(Library of Congress)에서 Microfilm을 만든 것인데, 그것은 光緒23(丁酉)年 즉 1897年(高宗 34)版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8) 本人이 使用한 『樂書』는 현재 하버드大學校의 Harvard-Yenching Library에서 Microfilm한 것인데, 그것은 光緒2年 즉 1876(高宗 13)年版임. 한편 原文對照過程에서 本人은 현재 國立國樂院所藏의 『樂書』를 함께 參考했는데, 이 본은 後序에 의하면 至正 丁亥年(1347년 忠穆王 3)版으로 思慮됨.

(9) 『宋史』는 乾隆4年(1739)版을 다시 復刊한 『二十五史』(臺北: 藝文印書館, 1956) Vol. 31에서 拔萃한 것을 參考했음.

(10) 宋芳松, “上揭論文”, pp. 60-67 參照.

<表 1>

『國譯樂學軌範』	『樂學軌範』原文	中國의 原典
25面の 註2	卷1. 3b10-4a6	『律呂新書』卷1. 26a3-8-26b6-9
26面の 註9	卷1. 4a8-9	『宋史』卷126. 15a9-10
31面の 註37	卷1. 6b11-7a2	『史記』 <sup>(11)</sup> 卷25. 5a6-9
34面の 10줄 이하	卷1. 8a2-8b10	『樂書』卷98. 1a-100. 4a
37面の *表	卷1. 9a9-10b1	『律呂新書』卷1. 14a-16a
41面の 1줄 이하	卷1. 10b1-10b6	『樂書』卷96. 2b-3a와 96. 3b6-9
44面の 2줄 이하	卷1. 12a3-5	『律呂新書』卷1. 9a5-8
65面の 註210	卷1. 20b5-21a7	『宋史』卷128. 4b3-5a7
67面の 註219	卷1. 21a11-21b6	『宋史』卷131. 6a6-6b2

先生님께서 밝힌 바를 다시 『唐書』<sup>(12)</sup> 卷22. 1ab에 依해서 檢討하면 大石의 “石”字가 『唐書』에서 “食”字로 댔을 뿐만 아니라 『樂學軌範』의 雙調角은 『唐書』에서 雙角으로 댔고 角旋法의 순서도 다음 <表 2>에서 보듯이 서로 약간씩 다르다.

<表 2>

『樂學軌範』 卷1. 17a4-5	『唐書』 卷22. 1a8-10
越角	大食角
大石角	高大食角
高大石角	雙角
小石角	小食角
雙調角	歇指角
歇指角	林鍾角
林鍾角	越角

네째로 指摘되어야 할 것은 145面の 註118을 보기로 提示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說明할 것이다. 《世宗實錄 卷一百三十二 p. 41 正至會儀》와 「세종실록」 55권(pp. 28~29와 제57권)(pp. 27~29) 및 제58권(p. 24) 이상 두가지의 보기는 註118에서 주어진 註釋의 形式이다. 晩堂先生님은 같은 註釋에서 世宗實錄과 「세종실록」이라고 漢文과 한글로 각각 다르게 표시하셨고, 卷數의 표시를 漢文과 아라비아 숫자로 역시 다르게 記載하셨다. 위의 보기에서 우리는 註釋의 形式이 一慣性있게 整理되지 않았음을 쉽게 느낄 수 있으며, 한편 우리는 이와 類似한 보기를 여러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몇가지를 더 羅列해 보면, 冊名을 한글과 漢文으로 混合해서 쓴 實例은 178과 179面(\*表註와 註2), 205와 206面(\*表註와 註57), 그리고 220面(\*表註) 등에서 發見된다. 卷數를 漢文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 보기는

(11) 『二十五史』(乾隆 4年(1739)版. 臺北: 藝文印書館, 1956), Vol. 1에서 拔萃한 것을 參考함.

(12) 『二十五史』, Vol. 25에서 拔萃한 것을 參考함.

88面 永寧殿 登歌의 \*表註, 89面 軒架의 \*表註, 그리고 93面의 \*表註 등 여러곳에서 눈에 띈다. 註釋의 特殊한 形式<sup>(13)</sup>에서 이미 言及된 바를 參考하여 145面 註118의 實例를 다시 整理해서 記載하면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 卷一百三十二 p. 41. ⇨ 『世宗實錄』 卷 132. 41.

『세종실록』 55권(pp. 28~29와 제57권)(pp. 27~29) 및 제58권(p. 24) ⇨ 『世宗實錄』 卷55. 28-29; 卷57. 27-29; 卷58. 24.

〈表 3〉

面數·行數·註	誤字·訂正事項	訂正된 것
61面 註186	宗史	『宋史』
70面 1行	대성보악	대성악보
70面 註237	『세종실록』 제137권	『世宗實錄』 卷137. 25ab
72面 10行	횡지(橫枝)	횡지(橫指)
72面 註244	《世祖實錄 卷第四十八》	《『世祖實錄』 卷48. 1a13》
75面 3行	중심음	중심음
76面 註264	大琴	大琴
79面 *表註	《高麗史 卷七十 pp. 1·5》, 世宗實錄 卷五十七, 30a》 《世宗實錄 卷四十七 p. 12a·13a》	《『高麗史』 卷70. 1-5》, 『世宗實錄』 卷57. 30a》 《『世宗實錄』 卷47. 12a-13a》
82面-83面*表註	春官通考 卷三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제105권(p. 8b)	『春官通考』 卷3. 7b 『增補文獻備考』 卷105. 8b
83面 10行	따라 이틀	따라 어(敵)를
84面 *表註	『세종실록』 제132권 《世宗實錄 卷五十七 p. 30b· 卷五十八 pp. 2<6》 樂學軌範 卷 p. 22 樂學軌範 卷二 p. 21b	『世宗實錄』 卷132. 17b 《『世宗實錄』 卷57. 30ab; 卷58. 2b11-12》 『樂學軌範』 卷2. 22b 『樂學軌範』 卷2. 21b
85面 註14	《世宗實錄 卷四十七 p. 16》	『世宗實錄』 卷47. 16a
86面 *表註	『세조실록』 제48권	『世祖實錄』 卷48. 6a
90面 註17	종묘제해악 131면	『한국음악 : 보태평·정대업』 (서울 : 국립국악원, 1973), p. 131
139面 註102	春官通考 卷四十 pp. 148-150	『春官通考』 卷40은 吉禮의 風雲雷雨이며 影印本 『春官通考』(서울 :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76) (中), pp. 148-50은 卷41(吉禮先農)이어서 不分明함.
178面 2行	당악정 재도설	당악 정재도설
207面 1行	포구악(拋毬樂)	포구악(拋毬樂)
218面 13行	금견악(金殿樂)	금전악(金殿樂)
226面 21行	하성조령	하성조(賀聖朝) 영(令)

(13) 註10 參照.

다섯째 註釋의 一般의인 形式에 대해서 冊과 論文의 경우를 하나씩 만을 골라서 例示로 기록 하련다. 42面의 註81에서 李惠求博士님은 《Harvard Dictionary of Music, Comma항 참조》라고 표시하셨는데, 그 책이 1944年의 初版을 意味하는지 아니면 近來에 나온 改訂版인지 不分明하다. 萬若 晚堂先生님이 改訂版을 意味하셨다면, 그 註釋은 Willi Apel, *Harvard Dictionary of Music* (Second Ed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p. 188의 Comma항 참조라고 표시되어야 分明하게 出處를 밝히신 셈이다. 179面의 註4에서 文一枝의 論文 引用은 文一枝, “春鶯囀舞譜”, 『음대 학보』(서울대학교 음학대학 학생회, 1968), 제 4 집, pp. 72-81 참조라고 表示되어야 만이 一般學界에서 通用되는 註釋의 形式을 제대로 갖춘 셈이 된다.

다음 <表 3>에 列擧된 誤字와 잘못 표시된 점 또는 고쳐야 할 事項 등은 다음과 같이 訂正되어야 할 것이다. 改訂版을 民族文化推進會가 낼 때 指摘된 사항들이 바르게 고쳐질 것 을 期待하면서 눈에 띠인대로 골라서 적는 바이다.

끝으로 附言코져 하는 바는 이번 第1卷에 이어서 『國譯 樂學軌範』 第2卷이 出刊될 때 자세한 索引과 組織의인 參考文獻目錄이 整理되어 附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海東高僧傳』의 英文翻譯<sup>(14)</sup>이나 Hugo Riemann의 獨文版 力著 *Geschichte der Musiktheorie im IX-XIX Jahrhundert* (2nd ed.; Berlin, 1920)의 英文翻譯<sup>(15)</sup>을 實例로 들지 않더라도, 組織的 이고 體系的인 Commentary 및 Bibliography는 그들의 훌륭한 번역에 못지 않게 後學들에게 學問的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이 學界에 널리 認定되고 있다. 아무쪼록 體系的인 索引과 參考文獻目錄이 晚堂先生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애써 오신 보람을 더욱 빛나게 해 줄 것 을 期待해 보고 싶다.

이상 위에서 披瀝한 本人의 意見이나 指摘된 몇가지 誤字의 訂正등은 玉의 티를 除去함 으로서 李博士님의 훌륭한 業績을 더욱 빛나게 해 보려는 愆心에서 提示된 것 뿐임은 勿論 이며, 그것이 『國譯 樂學軌範』이 지니는 學問的 貢獻이나 韓國音樂學界에 차지하는 굳건한 位置를 조금도 損傷치 못 할 것이다. 李惠求博士님께서 번역사업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번 책은 몸과 맘을 기울려 25餘年동안 갈고 닦으신 努力의 結晶體로서 晚堂先生님이 아 니고서는 成就할 수 없는 것임이 分明한 일이다. 그러므로 韓國音樂學의 研究分野에서 精 進할 後學들은 晚堂先生님의 높으신 뜻과 빛나는 功績을 거울 삼아 닦아 오는 韓國學研究 의 發展에 힘써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14) Peter H. Lee(trans.). *Lives of Eminent Korean Monks: The Haedong Kosŭng Chŏ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Harvard-Yenching Institute Studies XXV.

(15) Raymond Hagg (trans.). *History of Music Theory: Polyphonic Theory from the Ninth to the Sixteenth Century*.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2.